

20세기 초 베트남 지식인들의 동아시아 인식

- 連帶意識과 自民族中心主義 分析을 中心으로 -

윤대영*

- I. 머리말
- II. ‘出洋’과 동아시아 連帶의 形成
 - 1. 東遊運動期の 諸樣相
 - 2. 辛亥革命期の 諸樣相
- III. 現實의 連帶意識과 自民族中心主義
 - 1. 베트남·중국 知識人 連帶의 裏面
 - 2. 베트남 知識人들의 日本·韓國 認識
 - 3. 植民主義의 擡頭와 라오스·캄보디아 認識
- IV. 맺음말

본고는 19세기 후반부터 ‘新書’를 통해 ‘新學’을 수용한 베트남 지식인들의 지적 변용 과정에 대한 검토의 일환으로 그들의 동아시아 인식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베트남 개혁운동가들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으로의 東遊運動과 辛亥革命 이후 중국으로의 亡命을 통해 주변 동아시아 각국의 지식인들과 다양하고 폭넓은 사회적·정치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연대 조직의 형성이었는데, 베트남 지식인들의 동아시아 세계관도 일본과 중국에서의 연대 활동을 통해 확장되어 나갔다.

그러나, 사회진화론과 민족주의로 무장한 베트남 지식인들은 다른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假像’의 동아시아 연대를 통해 ‘實像’의 국익을 추구함으로써,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살아남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민족 民權의 수호를 전제로 한 타민족 民權의 억압 현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강사

상은 國權의 회복을 위해 정당화되어 갔다.

주제어: 베트남, 지식인, 新學, 新書,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사회진화론, 연대, 민족주의, 자민족중심주의

I. 머리말

지리상의 발견 이후 점증된 서구의 위협은 19세기에 들어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에 식민지를 건설한 구미 열강과 일본은 동아시아 각지의 개항장들을 중심으로 해상 교통로를 확보해 나갔고, 전신 시설과 국제 우편 제도의 확립을 통해 제국주의 지배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했다.

이러한 제국주의 정책의 확대에 직면한 동아시아 각국의 지식인들은 서구와 일본의 선진적인 지식을 수용하면서 자국의 개혁과 독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특히, 19세기 후반 이후 新學問을 소개할 목적으로 일본과 중국에서 간행되기 시작한 ‘新書’가 근대적인 해상 교통망의 발달에 힘입어 베트남 사회에도 다량으로 유입되어, 개혁 사상과 개혁 운동의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Youn 2007). 그러한 ‘新書’ 중에는 『東洋歷史地圖』, 『蒙東洋歷史教科』, 『亞洲三傑』, 『戊戌政變記』, 『最新中國史』, 『日本維新三十年史』, 한국에 관한 적지 않은 논설을 포함하고 있는 『飮氷室文集』, 『非律濱獨立史』 등의 동아시아 관련 서적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Đào Nguyên Phổ 1906).

이와 같은 간접적인 지적 교류와 동아시아 인식은 書籍에만 제

한되지 않고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직접적인 만남까지 유도하게 되었다. 소위 ‘出洋’(xuāt yang)으로 일컫는 러일전쟁 이후 베트남 지식인들¹⁾의 일본으로의 東遊運動 경험과辛亥革命 이후 중국 남부에서의 망명 생활은 그들의 동아시아 인식과 독립운동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일본과 중국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지식인들과 접촉할 수 있었던 베트남 개혁운동가들이 자국의 독립을 위해 선택한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주변 동아시아 지식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연대 조직을 결성한 것이었다. 아시아 연대론²⁾에 기초한 동아시아 연대 조직의 건설이 베트남 지식인들로 하여금 주변 동아시아 지식인들과 ‘제국주의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보조를 맞추도록 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베트남 개혁운동가들은 ‘生存競爭’을 통해 자국의 ‘適者生存’을 도모하고자 했던 동아시아 각국의 社會進化論者들과 어떠한 성격의 연대를 형성하고 있었을까? 각국의 ‘生存競爭’과 ‘適者生存’의 논리를 초월하여 진정한 협력에 기반한 동아시아 상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을까? 아니면, 다른 동아시아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표면적인 연대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끊임없이 관철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던가? 데이비스(H. B. Davis)가 말하듯이, “내셔널리즘은 야누스의 얼굴을 하고 있어 두 면을 향하고 있다”고 했는데 (Davis 1967, xii-xiii), 전통시대부터 이념적으로 혹은 실제적으로 조공국으로 간주했던 주변의 라오스나 캄보디아에 대한 팽창주의적 시각이 전환기 베트남 개혁운동가들에게 이르러서는 실질적인 변화

1) 주로 1860-1880년대 출생한 베트남의 마지막 사대부 세대인 이들은 어렸을 적부터 전통적인 유교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으며, 科擧를 통해 학위를 수여받았거나 관료로서의 경력을 갖고 있는 개혁운동가들도 이들 중에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2) 아시아 연대론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는 정문상 2004 참조.

가 있었는가?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통해 20세기 초 베트남 지식인들의 동북아시아 韓·中·日 三國과 동남아시아 라오스·캄보디아에 대한 전반적인 동아시아 인식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出洋’과 동아시아 連帶의 形成

베트남 지식인들이 아시아 연대 조직의 인사와 처음으로 접촉한 해는 18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淸朝의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正使 팜 툰 주엣(Phạm Thận Duật, 1825-1885)과 副使 응 우옌 투엣(Nguyễn Thuật, 1842-1911)은 당시 중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였던 王韜(1828-1898)의 소개로 1883년 12월 일본군 장교 이면서 興亞會 회원이었던 소네 토시토라(曾根俊虎, 1847-1910)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베트남 사신들에게 興亞會의 선전 책자를 보여 주면서 同會의 성격과 아시아 각국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Nguyễn Thuật 1980, 59; 『アジア歴史事典』, v. 5, 394.). 이후 19세기 말의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아직 없으나, 20세기 초반부터 베트남 개혁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각국 지식인들과 활발히 교류함으로써 동아시아 연대 조직의 형성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베트남 중부 응에 안(Nghe An)省 출신의 판 보이 찌우(Phan Bội Châu, 1867-1940)였다.

1. 東遊運動期の 諸樣相

1905년 초 판 보이 찌우는 反植民運動의 재원을 마련하고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났다. 당시 그에게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의 새로운 정책에 의해 서구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결에서까지 승리를 거둔 아시아의 성공 사례로 인식되고 있었다. ‘出洋’을 개시하기 전까지 판 보이 찌우는 외국인들과 접촉한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베트남인들만의 단결로는 ‘大義’를 달성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중국인들이나 다른 외국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독립을 도모하고자 했다(Phan Bội Châu 1957, 51; AMAE, NSI, v. 3, 28-29).

1905년 4월 일본에 도착한 판 보이 찌우는 渡日 이전부터 『戊戌政變記』, 『中國魂』, 『新民叢報』 등을 통해 일찍이 알고 있던 중국의 개혁운동가 梁啓超(1873-1929)를 만나기 위해 요코하마로 갔다. 베트남의 독립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한 그에게 梁啓超는 일단 일본이 군사 개입을 하게 되면 결코 물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중요한 것은 베트남인들 스스로 내적인 힘을 기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판 보이 찌우가 받은 또 하나의 중요한 권고는 “글을 많이 써서 프랑스의 혹독한 식민 정책 아래 베트남이 처한 곤경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다(Phan Bội Châu 1957, 52, 58). 이 권고에 따라 上海 廣智書局에서 1905년 9월에 출판된 『越南亡國史』(*Việt Nam Vong Quốc Sử*)는 책 표지의 ‘越南亡命客 巢南子[판 보이 찌우의 號] 述 梁啓超 撰’이란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20세기 초 베트남-중국 지식인 연대의 단초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梁啓超를 통한 일본 지식인들과의 접촉도 주목할 만하다. 梁은 판 보이 찌우에게 국민들의 의식을 일깨우며 이들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높이는 첫 수단으로 베트남의 젊은이들에게 외국에 가서 공부하도록 장려하라고 권유했었다(Phan Bội Châu 1957, 58).

이러한 취지에서 梁啓超는 일본 進歩黨 인사인 이누카이 츠요시(犬養毅, 1855-1932)와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1838-1922), 東亞同文會 幹事 카시와바라 분타로(柏栢文太郎, 1869-1936) 등을 소개해 주었다. 이어서, 이누카이는 陸軍參謀長 후쿠시마 야스마사(福島安正, 1852-1919)와 東亞同文會 會頭 네즈 하지메(根津一, 1860-1927)와의 만남도 주선했다. 이들 모두 역시 인재 양성이 급선무임을 말하고 유학생을 보내면 받아주겠다고 제안하게 되었다(白石昌也 1993, 311-312, 325).

특히, 東亞同文會는 貴族院議長 코노에 아츠마로(近衛篤磨, 1863-1904)의 후원 하에 아래 同文·同種인 중국의 문명을 학습한다는 취지에서 1898년 11월 창설되었고, 이듬해에는, 北京, 上海, 漢口, 廣州, 그리고 福州에도 지부가 설립되었다(東亞同文會 1898; 『皇城新聞』 1899/5/8 「外報」). 동시에, 한국으로도 파견된 東亞同文會의 회원들은 북청과 평양에서는 일어학교를 설립하고자 했고, 서울에서는 『漢城月報』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皇城新聞』 1899/5/8 「外報」, 1899/5/27 「雜報」, 1899/6/19 「雜報」, 1899/7/7 「雜報」; 『日本外務省文書』, MT 3.10.2.13, 17-27, 139-145). 同會의 활동은 1899년과 1901년 사이에 東京, 南京, 上海 등지에서 同文書院의 건립으로 이어졌다(ASME 1906, 246; Frédéric 1996, 1119). 이처럼 아시아 연대를 지향하고 있던 東亞同文會와 판 보이 찌우의 만남은 베트남 지식인들의 ‘出洋’에 큰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당시 중국, 한국, 태국, 인도 등지의 유학생들을 후원하고 있던 東亞同文會가 베트남 학생들의 同文書院으로의 입학を 결정하면서 베트남 청년들의 일본 방문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AMAE, NSI, v. 3, 162; AOM, GGI, AAF, 25). 판 보이 찌우는 학생들을 일본으로 데려가기 위해 1905년 8월 베트남에 몰래 숨어들었다.

1906년 그가 3명의 학생을 데리고 온 이래 일본 유학생의 수는 점차 증가하여 1907년에는 100여 명에 달했고 1908년에는 200명을 넘었다. 베트남 학생들의 이런 일본 유학을 동유(東遊, Đông Du) 운동이라고 한다(유인선 2002, 321; Phan Huy Le 2006, 3; Nguyễn Tiến Lực 1995, 22-23). 東亞同文會의 협력으로 형성된 베트남의 ‘東遊’ 풍조는 베트남 지식인들과 주변 동아시아 지식인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베트남 개혁운동가들의 인적 네트워크는 중국 및 일본 혁명과 그룹으로도 확대되었다. 판 보이 쩌우가 1905년 초 베트남을 떠나 일본으로 가던 중 홍콩에 잠시 들려 중국 혁명과 그룹의 대표적인 신문이었던 『中國日報』의 주필 馮自由(1881-1958)를 만나 독립 운동에 대한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다.³⁾ 같은 시기에 康有爲(1858-1927) 계열의 개혁파 신문인 『商報』의 책임자 徐勤(1873-1945)이 판 보이 쩌우의 면담 요청을 냉담하게 거절한 것과 달리, 馮自由는 자신이 즉각적으로 베트남의 독립 운동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에 의하면, 중국을 차지하고 있는 만주족을 축출하는 것이 선결 임무이므로, 이 과업이 완수된 이후에야 베트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漢族으로 兩廣總督이던 岑春煊(1861-1933)이 베트남과 인접하고 있는 廣西 출신이므로, 그에게 접근하여 과거 ‘중국과 베트남의 전통적인 관계’를 상기시키면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의외의 성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충고해 주었다(Phan Bội Châu 1957, 51-52; AMAE, NSCH, v. 8, 140, v. 28, 38).⁴⁾

3) 판 보이 쩌우가 馮自由를 알게 된 경위는 분명하지 않지만, 『中國日報』가 베트남 사회에 유입되어 읽히다가 인도차이나 식민당국의 1904년 7월 3일 법령에 의해 유통이 금지된 것을 보면, 판 보이 쩌우가 ‘出洋’ 이전부터 이미 馮自由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AOM, GGI, d. 43933, d. 26752. 참조.

일본에 도착한 이후에는 역시 혁명과 인사였던 湯叔(湯覺頓, 1878-1916)를 알게 되었다(Phan Bội Châu 1957, 63-64; 潘佩珠 1999, 259; 徐友春 1991, 1184). 또한, 1905년 겨울에는 이누카이의 소개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막 돌아온 孫文을 요코하마의 致和堂에서 만났다. 이미 판 보이 찌우의 『越南亡國史』를 읽은 孫文은 입헌군주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베트남 독립운동가들이 中國革命同盟會에 가담할 것과 중국혁명이 성공하면 제일 먼저 베트남의 독립에 힘쓸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共和政體의 장점을 인정하고 있던 판 보이 찌우는 同盟會가 먼저 베트남 독립 운동에 협조한 이후에야 베트남 북부를 廣東과 廣西 진격의 전진 기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혁명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Phan Bội Châu 1957, 67). 1905년 말에는 당시 東遊運動에 참가하고 있던 베트남 청년 르엉 응옥 꾸옌(Luong Ngọc Quyén, 1885-1917)이 다른 두 명의 베트남 학생들과 함께 동경의 民報社로 과전되어 일하면서 章炳麟(1868-1936) 및 張繼(1882-1947)와 교분을 쌓을 수 있었다(Phan Bội Châu 1957, 63; Boudarel 1981, 168).

이후 베트남 독립운동가들과 각국 革命黨人들과의 유대는 연대 조직의 성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판 보이 찌우는 ‘中華革命黨’과 ‘日本平民黨’ 사이를 오고가면서 1907년 여름 東京에서 東亞同盟會⁵⁾ 결성에 참가할 수 있었다. 同會의 會則에 따르면, 동경에 총부를, 중국, 인도, 한국, 필리핀, ‘安南’ 등지에는 지부를 둔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 會의 목적이 중국, 인도, 안남, 필리핀, 버마,

4) 이 충고에 따라 이후 1905년 9월 초에 판 보이 찌우는 岑春煊을 만나 베트남 독립 운동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는데, 兩廣總督은 당시 反佛 성향이 강하던 휘하의 劉永福, 陸榮廷, 莊蘊寬(1866-1932), 郭人漳 등을 소개시켜 주었다(Phan Bội Châu 1957, 60; AOM, GGI, AAF, 16; 徐友春 1991, 378-379, 701-702, 806)

5) 東亞同盟會의 異稱으로는 ‘亞洲和親會’, ‘東亞和親會’, ‘東亞亡國同盟會’ 등을 들 수 있다.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등의 革命黨을 연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쯔엥 티우 2007, 97). 이 조직에 대해서 판 보이 찌우 Phan Bội Châu niên biểu(潘佩珠年表)에서 다음과 쓰고 있다.

우선 아시아의 志士들과 망국 민족들을 연합하여 어떻게 해서 하나의 黨으로 단결하면, 언젠가 동시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Phan Bội Châu 2000b, 196).

同會의 구성원에는 판 보이 찌우 이외에도 베트남인으로는 당 뜨 먼(Đặng Tử Mão), 응우옌 꾸인 림(Nguyễn Quỳnh Lâm) 등 10여인, 그리고 중국인으로는 章炳麟, 張繼, 景枚九, 劉師培(1884-1919) 등이 있었다. 다른 아시아 활동가로는 한국 정부의 장학생이었던 趙素昂(1887-1950), 인도인 한 명(帶君), 필리핀인 한 명(怛君)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인도 10여명이 적극 지원하여 주었는데, 대표적 인물로 사카이 토시히코(堺利彦, 1870-1933), 미야자키 토오텐(宮崎滔天, 1870-1922), 코토쿠 슈스이(幸徳秋水, 1871-1911),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1885-1923) 등이 있었다(『日本外務省文書』, MT 1.3.1.4, 502; Phan Bội Châu 1957, 118; 趙素昂 1992, iii-iv; 白石昌也 1981, 264-265; Jansen 1954, 124; Bergère 1994, 166-167.).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 雲南省 및 廣西省 출신의 同盟會 그룹과 베트남 독립운동가들의 연대 조직 결성이다. 1905년 여름 판 보이 찌우는 梁啓超의 소개로 동경에서 雲南 출신으로 振武學校 졸업생 殷承瓚(1877-1946)을 만날 수 있었다. 殷承瓚은 판 보이 찌우에게 다시 同校의 同鄉 재학생인 楊振鴻(1874-1909), 趙伸(1876-1930), 唐繼堯(1881-1927) 등을 소개시켜 주었다(AOM, GGI, AAF, 25; Phan Bội Châu 1957, 59, 64-65; 雲南省歷史學

會·雲南省中國近代史研究會 1991, 26, 37-38; 白石昌也 1993, 419). 또한, 이러한 만남이 계기가 되어 在日雲南省人들의 잡지 『雲南』의 편집원이 된 판 보이 찌우는 「海外血書初編」(4호, 1907.2.13), 「海外血書續編」(5호, 1907.3.31), 『越南亡國史』의 일부에 해당하는 「越南志士之慘結局」(6호, 1907.7.20), 「哀越弔滇」(6호), 「和淚貢言」(7호, 1907.7.20) 등의 기사들을 발표할 수 있었다(白石昌也 1993, 423).⁶⁾ 1907년 여름, 판 보이 찌우는 운남유학생회 회장 趙伸과 광서유학생회 회장 曾彦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雲南·廣西·베트남의 在日學生組織 연맹체인 滇桂粵越聯盟會를 조직하는데 성공했다(Phan Bội Châu 1957, 119).

滇桂粵越聯盟會의 활동은 베트남 국내로까지 확대되었던 것 같다. 인도차이나 식민당국은 운남성 관리들의 자제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1905년 1월 10일 하노이(Hà Nội)에 빠비 학교(École Pavie)를 설치하여 1908년 7월 11일까지 운영했었다(Youn 2007, 308-310). 그런데, 孫文이 1905년 12월 인도차이나의 항구들을 중심으로 同盟會 支部를 설치하고 하노이에 總部를 설치함에 따라 현지 華僑들이 同盟會에 가입하기 시작했는데, 운남성 출신의 유학생들 가운데에서도 1906년부터 同盟會 회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中國國民黨中央黨黨史史料編纂委員會 1977, 卷2, 12, 72-73, 100; 『하노이第一國家文書庫資料』, RST, d. 36685, d. 38105; AMAE, NSCH, v. 582, 86). 이러한 상황에 호응하여 판 보이 찌우는 1907년 베트남에 밀입국하여 도 께 광(Đỗ Cơ Quang, 1878-1914)의 소개로 당시 하노이의 항 분 거리(Phố Hàng Bún)에 거주하던 운남 출신 학생들과 함께 雙南同盟會(Song Nam Đông

6) 1906년 10월 15일부터 東京에서 출간되기 시작한 중국 혁명과 잡지 『雲南』에 대해서는 雲南省歷史學會·雲南省中國近代史研究會 1991, 41-52 참조.

Minh Hội)라고 하는 베트남·雲南 연맹체를 조직했다(Nguyễn Hiến Lê 2002, 341). 趙蓮元, 徐濂, 束於德, 文寶奎, 李余芳, 張邦翰 등의 학생들이 바로 同盟會 회원들이었으며, 이들 중의 누군가가 1907년 3월부터 1908년 1월까지 하노이에 근거지를 잡고 있던 孫文과⁷⁾도 께 팡의 만남도 주선했을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 시작된 베트남 독립운동가들과 동아시아 각국 지식인들간의 연대는 1907년 6월의 佛日條約으로 인해 난국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 조약에는 두 나라가 아시아 대륙에서 상대방의 입장과 영토권을 존중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프랑스 당국의 의사를 받아들인 일본은 在日 베트남인 조직을 해산시키기 시작했고, 1909년이 되면 대부분이 베트남으로 돌아오거나 해상 교통이 편리하고 프랑스의 감시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홍콩으로 망명했다(AMEP, v. 711C, 67). 그 해에 일본으로부터 추방된 판 보이 찌우는 홍콩을 경유하여 사이암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다.

2. 辛亥革命期의 諸樣相

그런데, 1911년 중국에서 辛亥革命이 발발했다는 소식은 베트남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사이암, 인도차이나, 중국의 여러 도시들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던 베트남 민족주의자들은 점점 廣州로 결집하기 시작했다.

7) 인도차이나 프랑스 경찰 당국의 추적으로 1908년 1월 15일 하노이 감베타 거리(Boulevard Gambetta, 현재의 Đại lộ Trần Hưng Đạo) 61번지에서 발각된 孫文은 3일 후 사이공(Sài Gòn)으로 보내지고, 1월 25일에 싱가포르로 추방되었다.(AMAE, NSI, v. 27, 223, NSCH, v. 200, 10, 13-14, 16, 26, 86, 102-103, 141-142)

표: 베트남 독립운동가들의 廣州로의 결집

사이암→廣州	베트남→廣州	중국의 기타 도시→廣州
판 보이 찌우, 당 뜨 먼, 응우옌 꾸인 림, 당 홍 편(Đặng Hồng Phấn), 응우옌 턴 히옌(Nguyễn Thần Hiến), 호앙 흥(Hoàng Hưng), 당 빈 나인(Đặng Bình Thành), 마이 라오 방(Mai Lão Bang) 등	응우옌 켜 장(Nguyễn Cẩm Giang), 응우옌 종 트영(Nguyễn Trọng Thường, 하노이→廣州), 도 켜 광 등	끄엉 데(Cường Đê), 당 흥우 방(Đặng Hữu Bằng), 부 관(Vũ Quán), 호앙 종 머우(Hoàng Trọng Mậu), 쩨 흥우 록(Trần Hữu Lục) 등

출처: Phan Bội Châu 1957, 138-139, 161

이 대열에 참가하고 있던 판 보이 찌우도 1912년 초에 100여명
의 동지들이 廣州에 규합이 되자 같은 해 維新會를 해산하고 民主
共和國 건설을 목표로 越南光復會를 창설했다(Phan Bội Châu
1957, 68, 137, 140).

이처럼 越南光復會가 새롭게 정비되는 과정에서 베트남 독립운
동가들과 중국 혁명파의 연대 활동이 재개되었다. 판 보이 찌우는
1912년 上海로 가서 在日 시기부터 알고 지내던 陳其美(1876-
1916)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인연을 맺은 胡漢
民을 통해 孫文과 黃興(1874-1936)을 만나 베트남 혁명 운동의 발
전 방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었다(Phan Bội Châu 1957, 143-144,
150-151). 아울러, 시작부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越南光
復會는 陳其美와 劉師復(1884-1915)으로부터 각각 4000元和 200
元을 받았고, 關仁甫(1873-1958), 謝英伯(1882-1939), 鄧警亞
(1880-1966) 등으로부터도 100元씩의 지원금을 얻어 냈다(Phan
Bội Châu 1957, 143).

1912년 6월에는 자 룡(Gia Long, 1802-1820 재임) 황제의 직
계 자손으로 東遊運動에 참가한 바 있는 끄엉 데(Cường Đê)가 廣

州에서 인도차이나와 중국 남부의 會黨 지도자로서 辛亥革命에 참가했던 王和順(1868-1934)과 과거 黑旗軍 지도자로서 응우옌 왕조의 군대와 함께 프랑스군과 전투를 벌였던 劉永福으로부터 자금과 무기를 지원받기도 했다(AMAE, NSI, v. 22, 75-76). 이후, 1912년 후반부터 1913년 사이에 廣西 지역에서 진행된 양국 혁명가들의 협력은 군사 교육, 위조 여권 발행, 무기 지원, 프랑스 식민 당국으로부터의 법적 보호 등의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Youn 2007, 526-529).

한편, 反植民運動을 보다 광범위하게 전개하기 위해 모든 植民地 아시아 지식인들의 대동단결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판 보이 찌우는(Phan Bội Châu 1957, 118) 연대 조직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912년 경 廣西의 龍州에서는 중국 당국의 보호 아래 일본인들과 함께 大同連絡感情會(Đại Đồng Liên Lạc Cảm Tình Hội)를 창설하였다(AMAE, NSI, v. 13, 450). 1912년 8월에 200여 명의 아시아 혁명가들로 구성된 振華興亞會(Hội Chấn Hoa Hưng Á)에서는 베트남, 인도와 버마, 그리고 한국의 순으로 각국의 독립 운동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Phan Bội Châu 1957, 153-154). 1912년 9월, 판 보이 찌우와 동료 응우옌 트영 히엔(Nguyễn Thượng Hiền, 1868-1925)은 上海 租界地에서 世界人道會(Thế Giới Nhân Đạo Hội)를 건설하여 反佛의 대의에 中日 혁명가들을 동참시켰다(AMAE, NSI, v. 13, 62). 1913년에 조직된 四國同盟은 주로 베트남, 한국, 일본, 러시아, 인도 출신의 혁명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AMAE, NSI, v. 14, 26; Tirard 1914). 1913년 6월 北京에서 한국인 독립운동가 ‘閔君’과 筆談을 나누면서 亡國의 현실에 同病相憐을 느꼈던 응우옌 트영 히엔의 경우를 보더라도(Nguyễn Thượng Hiền 1925, quyển hạ, 1a; 中國史學會 編 1957, v. 7, 543), 辛亥革命 이후 중국으로 망명했던 한국과 베트

남 양국 지식인들이 자국의 독립을 모색하기 위해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1905년부터 시작된 東遊運動과 1911년의 辛亥革命을 통해 베트남의 독립운동가들은 주변 각국의 다양한 인사들과 교류함으로써 동아시아 민족주의 운동의 조류를 인식하였고, 그리고 그들과 연대함으로써 자국의 독립을 앞당기고자 했다. 그런데, 이러한 동아시아 각국 지식인들 사이에 형성된 連帶의 裏面에는 自民族中心의 현실적 민족주의자로서의 모습이 내재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III. 現實的 連帶意識과 自民族中心主義

먼저, 당시 베트남과 중국 지식인들 간에 형성된 연대의 실상을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 連帶意識과 自民族中心主義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많은 단서를 제공해 주리라 생각한다.

1. 베트남·중국 知識人 連帶의 裏面

1923년 판 보이 쩌우에 의해 집필된 *Thiên hồ ! dề hồ* ! [하늘이여! 황제여!]의 서문을 작성한 胡適(1891-1923)은 “과거 20여 년간 중국 지식인들의 베트남에 대한 태도는 너무나 냉혹했다”고 평가하고 있다(Phan Bội Châu 1990a, 504; 胡適 1924, 25). 과연, 어떠한 측면에서 중국 지식인들이 베트남을 냉혹하게 바라보았던 것일까?

중국 지도층 인사들의 냉혹한 평가는 베트남에 대한 문화적 편견과 멸시로부터 비롯되었다. 예를 들면, 淸朝의 관리 徐繼畬(1795-1873)는 『瀛環志略』(1848)에서 베트남 응우옌 왕조(阮朝, 1802-1945)의 高官들은 조회할 때 그들의 왕 앞에서 버젓이 이를 잡는다고 중국인들에게 소개했다(徐繼畬 1866, 卷一, 24b). 또한, 1905년 당시 廣西 지역의 道臺였던 蔣蘊寬(1866-1932)은 “몇몇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安南人들의 노예 근성은 도저히 치유할 수 없다”라고 공언하고 있었다. 梁啓超의 눈에 비친 베트남인들도 가난으로 인해 예의를 전혀 모르는 ‘不堪之民’이었을 뿐이었다(梁啓超 1916, 19b).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의 나라’가 ‘아우의 나라’를 돕는 심정으로 판 보이 짜우에게 『越南亡國史』의 출판을 돕는다고 했지만, 梁啓超의 원래 목적은 베트남의 식민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프랑스 제국주의의 위험성을 자국의 국민들에게 알려 反佛 의식을 고양하는 데 있었을 뿐이었다(Phan Bội Châu 1957, 58; AMAE, NSCH, v. 124, 56).

한편, 중국 혁명과 그룹의 베트남 인식과 베트남 개혁운동가들과의 연대 양상은 淸朝의 관리들이나 개혁파 그룹의 경우와 달랐다고 볼 수 있을까? 1905년과 1907년 판 보이 짜우와 도 켜 팡을 접촉한 孫文은 이미 1900년 6월년부터 프랑스 당국에 접근하여 인도차이나 북부로부터 중부 남부로의 進攻 작전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在日 프랑스대사 아르망(Jules Harmand), 인도차이나 총독 두메(Paul Doumer, 1897-1902 재임)와 보(Paul Beau, 1902-1907 재임), 인도차이나 내각 의장 아르두앵(Hardouin), 在中 프랑스 공사관 소속 보병 장교 부까베이요(Boucabeille) 등과 꾸준히 접촉하면서 정치적 거래를 시도했었다(Youn 2007, 304-305, 538-542). 1907년 3월부터 1908년 1월까지 하노이에 체류하면서 중국 남부에서의 봉기를 준비하던 孫文은 一群의 프랑스 식민주의

자들로부터 전술상의 조언과 함께 군자금과 무기 등을 지급받았다(Bergère 1994, 170, 197, 202, 207-208). 특히, 鎮南關 봉기가 발생한 직후인 1907년 12월 3일과 4일에는 휴가 중에 있던 어떤 프랑스 보병 장교가 孫文등의 중국 혁명가들을 일본인으로 위장시켜 국경 통과를 도와주기까지 했다(AMAE, NSCH, v. 209, 99). 1908년 4월 30일 라오 까이(Lào Cai)에서 출발한 河口 봉기가 실패로 돌아가 베트남 북부에서 중국 남부로의 혁명 봉기가 힘들어지자, 이듬해 방콕에서는 프랑스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자신의 혁명 방안을 지지해 준다면 극동에서의 프랑스의 영유권과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AMAE, NSCH, v. 204, 193). 黃興의 경우에도 베트남의 톤킹 지역은 중국으로부터의 일시적인 유용한 도피처이자 싱가포르나 말레이 반도로 빠져 나가기 위한 혁명의 전술적인 背後地였을 뿐이었다(ASME 1911, 226-228).

辛亥革命 이후 전개된 중국인들의 對베트남 인식도 흥미롭다. 19세기 후반부터 응우옌 왕조와 협력하여 프랑스군과 싸웠던 劉永福은 이후에도 베트남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었다. 1885년에 시작되어 1897년에 종말을 고한 베트남 勤王運動의 가담자들이 중국으로 이주를 선택하자, 廣西와 廣東 지역에서 톤 텃 투엣(Tôn Thất Thuyết, 1835-1913), 응우옌 티엔 투엣(1844-1926) 등과 같은 지도급 인사들의 망명 생활을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땅 밭 호(Tăng Bạt Hổ, 1858-1906)나 판 보이 찌우와 같은 청년 독립운동가들과도 연계시켜 주었다(Phan Bội Châu 1957, 44, 60-62, 75; AOM, GGI, AAF, 23; AMAE, NSI, v. 22, 68-69, NSCH, v. 100, 222). 그러나, 辛亥革命 직후 廣東 민병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치안을 맡게 된 劉永福이 1911년 11월 27일 발표한 선언문에 따르면, 과거 자신이 톤킹 지역에서 黑旗軍을 이끌고 프랑스 군대에 맞서고 淸佛戰爭에도 가담한 이유는 위기에 처해 있

던 중국을 수호하기 위함이었을 뿐이지, ‘安南’에게 봉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AMAE, NSCH, v. 32, 159-160). 한때 빠비 학교의 학생이었던 張邦翰도 雲南省 임시 총독의 비서 자격으로 1912년 1월 하노이에 파견되어 과거의 스승이었던 오꾸르(P. Aucourt)와 회담했는데, 인도차이나에서의 프랑스의 역할을 승인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했다(AMAE, NSCH, v. 204, 193-194). 1914년 3월에는 四國同盟 휘하의 중국-베트남 혼성 부대가 廣西 국경 지대로부터 베트남의 랑 썬(Lang Son)과 까오 방(Cao Bang) 지역을 공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국인 사병들이 과거 조공국이었던 베트남 출신 장교의 지휘를 거부하는 바람에 진공 작전에 큰 차질을 빚기도 했다(AMAE, NSI, v. 23, 264). 이처럼, 辛亥革命 직후 중국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민족주의 정서의 고양,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대외 정책 채택, 전통적인 中華 사상 고수 등은 베트남인들과 공조를 모색하는 과정에 항상 잠재해 있으면서 양국 연대 활동의 변수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과연 같은 시기의 베트남 지식인들은 중국과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까? 辛亥革命 이후 중국에서 활동하던 베트남 혁명가들은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자국의 독립을 도모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혁명가들과의 공조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AMAE, NSI, v. 17, 146). 이러한 판단 아래, 반제국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연대 조직을 결성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보장 받는 동시에, 자국의 독립에 유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때문에, 연대와 협력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혁명과 그룹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 결과, 1913년 판 보이 찌우는 袁世凱(1859-1916)에게도 접근하여 베트남 청년들을 장학생으로 사관학교에 입학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Phan Bội Châu 1957, 108).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중국인들과 연대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지식인들은 자국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일본과 한국을 어떠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었을까?

2. 베트남 지식인들의 日本・韓國 認識

베트남 지식인들의 일본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기에 앞서 당시 한국 정부나 지식인들의 프랑스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乙未事變 이후 일본의 위협을 절감한 高宗은 1897년부터 프랑스 선교사로서 조선 교구를 담당하고 있던 뮈텔(Mutel) 주교나 프랑스군 극동 사령관 비달(Vidal)에게 접근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개입과 협력을 요청하기 시작했다(AMEP, v. 581, 1345-1347; AMAE, NSC, v. 25, tome 1, 56, v. 27, 80-81). 또한, 대한제국 정부는 다양한 개혁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신업무 전문가 끌레망쎬(Clémencet), 동양학 연구자 쿠랑(Maurice Courant), 법률 전문가로 사이공 정부에서도 근무한 바 있는 크레마지(Crémazzy) 등과 같은 프랑스인들을 직접 고용하여 만국우편연합 가입, 『朝鮮書誌』 편찬, 형법 정비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皇城新聞』, 1898/12/3-9 「雜報」; AMAE, NSC, v. 26, 139, NSA, v. 2, 13; 이진명 2004, 42-53). 그밖에도, 한국 정부는 무기 구입, 이위중(1887-?)과 같은 한국 학생들의 프랑스 썬씨르 사관학교(École militaire Saint-Cyr)로의 입학, 차관 협상, 양국 외교 관계 격상 등의 노력을 통해 1905년부터 일본의 직접적인 방해가 있기 전까지는 親佛 정책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갔다(AMAE, CCCS, v. 2, NSA, v. 2, 13-14, 19, NSC, v. 8, 226-228,

240, v. 13, 132-133, v. 25, t. 1, 224, 264-266, 271).⁸⁾ 1907년 1월에는 권재중이라고 하는 전임 관리가 안동에서 프랑스 영사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어 일본의 만행을 萬國公法에 의거하여 전 세계가 규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AMAE, NSC, v. 3, 11). 朝廷과 권재중의 의도는 미국에게도 했던 바와 같이 프랑스의 세력을 끌어들여 어느 배타적 세력의 독점적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실리적인 전술이었다.

일부 한국 지식인들의 對佛觀도 김옥균이나 윤치호 등의 담론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1882년 김옥균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영국이 된 것처럼, 조선이 아시아에서 프랑스가 되어 부국강병을 달성하자고 주장했다(서재필 1947). 윤치호는 청불전쟁 이후 1885년에 天津條約이 체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에서의 중국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프랑스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1897년에는 프랑스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중에 사이공을 잠시 방문했었는데, 그 곳에서 본 인도차이나 당국의 식민지 경영에 매료되어 장차 한국의 학생들은 ‘장엄한 문명’과 ‘위대한 부강’에 도달한 프랑스를 모델로 삼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게 되었다(『독립신문』 1897/3/13, 「雜報」; 윤치호 1971-1975, v. 4, 339-341). 사회진화론을 수용한 김옥균이나 윤치호 같은 한국의 지식인들은 그들의 조국이 냉엄한 국제 경쟁을 통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제국주의 경영 방식을 모범적인 사례로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베트남의 對日本觀 문제와 관련하여, 러일전쟁 이후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급진적인 부상은 베트남의 親日 경향을 추동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러일전쟁 직후 타

8) 1886-1910년의 한-불 관계에 대해서는 洪淳鎬 1986, 95-132 참조.

인 타이(Thành Thái, 1889-1907 재위) 황제는 일본이 베트남의 프랑스 세력도 축출해 줄 것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다녔다(Nguyễn Thế Anh 1992, 206-207). 타인 타이 황제를 계승한 새로운 황제의 연호가 ‘주이 떤’(Duy Tân, 維新, 1907-1916)이었던 것도 明治維新의 정신을 본받으려 했던 베트남 황실과 조정의 간접적인 표현이었다(Nguyễn Thế Anh 1992, 211-212).

이러한 경향은 후에(Huế)의 조정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1905년 말부터 1908년 사이에 많은 관리들과 지식인들이 일본의 지원 하에 반식민지 봉기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AOM, GGI, AAF, 2). 스스로 斷髮을 선택했던 타인 타이 황제의 경우처럼, 전국에 광범위하게 퍼진 단발 풍조는 일본을 모델로 베트남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편승하여 베트남 사회의 각계각층과 다양한 지역에서 東遊運動이 발전하게 되었다(AMAE, PAB, v. 6, 15, 25; Đông Kinh Nghĩa Thục 1997; AMAE, NSI, v. 20, 246). 따라서, 1910년 통킹 북부 지역의 선교를 담당하고 있던 아바날(Abgnall) 주교는 “베트남의 개혁 운동이 日本化 운동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까지 지적한 것이다(AMEP, v. 710B, 237).

판 보이 찌우의 일본 인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베트남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하노이, 다 낭(Đà Nẵng), 사이공 등지에서 운영되던 기생집들은 그에게 있어서 단순한 여흥의 장소가 아니라 외국의 정세를 들을 수 있었던 정보 획득의 공간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인도차이나 식민 당국에 의한 베트남인들의 출입 금지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다(Phan Bội Châu 1990b, 148). 또한, 일본 각지에서 일본인들에게서 받은 환대와 그들의 지지 내용을 동포들에게 알리면서 東遊運動에 나설 것을 촉구하게 되었다(AMAE, NSI, v. 2, 187; Phan Bội Châu 1990c, 34-35). 그 이외에도 사치

와 패락에만 져서 사는 자국의 황제와 비교되는 일본 천황의 德性과 善政이나 러일전쟁 당시 적군들에게서 중요한 정보들을 입수한 일본 기생들의 활약상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Phan Bội Châu 1990d, 197-198, 213).

또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던 베트남 지식인들의 현실적 민족주의자로서의 모습이 판 보이 찌우의 경우에서도 드러난다. 1903-1904년과 1905년 각각 쓰여진 판 보이 찌우의 “Lưu Cầu huyết lệ tân thư”[流球血淚新書]와 “Kê chuyện năm châu”[五洲 이야기]에서는 류큐와 한국의 망국적 현실에 대해 동정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東遊運動 이후 일본 정객들과의 대화에서는 이 두 나라의 문제에 대해 가급적이면 언급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오키나와 시게노부와 류큐 문제를 논의할 때는 오히려 프랑스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였다(Youn 2007, 560-561). 판 보이 찌우에게서 나타나는 親日 경향과 현실적 민족주의자로서의 일본에 대한 접근은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同種의 연대를 지향한 것이었다.

반면, 동시기의 개혁사상가 판 찰 쥘(Phan Chu Trinh, 1872-1926)은 일본 문명의 선진성을 인정하면서도 제국주의 정책의 위험성을 간파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Tran My-Van 1999, 132). 마찬가지로, 근대적인 언론인 응우옌 반 빈(Nguyễn Văn Vĩnh, 1882-1936)도 주변의 동료들에게 일본의 대만과 한국 강점을 유념해야 된다고 충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AOM, GGI, d. 21518, 6). 『越南亡國史』를 강독한 한국의 어떤 지식인도 같은 이유로 판 보이 찌우가 구상하고 있던 아시아 연대론의 문제점을 비판했던 것이다(盱衡生 1909). 그러나, 판 보이 찌우의 행보는 이들의 對日本觀과는 달리, 일본과의 연대를 점차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팽창주의자들이었던 카시와바라 분타로, 후

쿠시마 야스마사, 코다마 겐타로(兒玉源太朗, 1852-1906) 등과도 교류를 갖게 되었다(AOM, GGI, *AAF*, 14-15, 28; Phan Bội Châu 1957, 71, 96).

이러한 과정에서, 프랑스의 침략에 대한 대항으로 발전된 베트남의 저항적 민족주의와 아시아 연대 의식은 현실 정치 상황에서 변용 과정을 겪게 되었는데,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바로 팽창적 민족주의로서의 植民主義의 출현이다.⁹⁾

3. 植民主義의 擡頭와 라오스·캄보디아 認識

20세기 초반 판 보이 찌우의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東遊運動期에 집필된 그의 저작들은 이 베트남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일본 정부의 한국으로의 팽창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던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1859), 사이고 타카모리(西郷隆盛, 1827-1877),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 등의 인물을 개인적으로 매우 숭배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Phan Bội Châu 1990c, 35-36, 40; Phan Bội Châu 1990e, 275; Phan Bội Châu 1990f, 215). 판 보이 찌우의 판단에 의하면, 요시다 쇼인과 같은 일본의 애국자는 미래의 베트남 역사에 반드시 출현해야만 하는 위대한 인물이었다(Phan Bội Châu 1990c, 35-36). 그밖에, 사이고 타카모리의 傳記가 당시 베트남 지식계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사실을 통해서도 팽창적 민족주의로 경도되어 가는 베트남 사회의 潮流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Đào Nguyên Phổ 1906).

1907년 3월 하노이에 설립된 사립 학교 東京義塾(Đông Kinh

9) 민족주의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는 Snyder 1968, 3-4 참조.

Nghĩa Thực)의 교육 내용과 성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학교의 대표적인 교과서였던 *Văn Minh Tân Học Sách*(文明新學冊)에 실려 있던 “Thình khán Cao Ly vong quốc chi thảm trạng”(請看高麗亡國之慘狀)이란 글에서는 망국에 이른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외국의 보호는 국가의 폐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한국의 모델을 따르기 보다는 일본의 모델을 따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Đông Kinh Nghĩa Thực. 1907a, 45b-53b). 이 학교를 관리하던 응우옌 꾸옌(Nguyễn Quyền, 1869-1941)도 여러 강연회에서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 베트남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협력하여 서구 열강들과 대등하게 겨루고 있는 일본인들을 본받아 한다고 주장했다(AOM, GGI, *AAF*, 72). 이와 같은 인식은 1907년 4월 27일에 개최된 강연회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당시 청중들의 한 명이었던 응우옌 반 빈은 연사 중의 한 명이 한국의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대단히 찬양했다고” 증언하고 있다(AOM, GGI, d. 21518, 4-5).

이처럼, 당시 베트남 개혁운동가들에게서 보이는 親日 경향은 일본을 모범으로 삼아 주변국들을 식민화하려는 의도로까지 발전되었다. 이와 관련한 판 보이 찌우의 초기 작업은 레 왕조(黎朝)와 응우옌 왕조가 참파, 라오스, 캄보디아를 잠식하면서 영토를 팽창한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潘佩珠 1979, 17). 다음으로, 인도, 한국, 버마가 예속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목도하면서, *Việt Nam Quốc Sử Khảo*(越南國史攷)에서는 카토 히로유키(加藤弘之, 1836-1916)와 梁啓超의 ‘強權’ 및 ‘國權’ 이론을 수용하여 베트남인들의 民權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國權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Phan Bội Châu 1990g, 386-387). 판 보이 찌우의 이런 논의에 주석을 붙여 설명한 호앙 쯡 머우(Hoàng Trọng Mậu, 1874-1916)는 “버마나 인도의 상황으로 전락한 베트

남의 현실이 실로 슬프구나!”라고 한탄하고 있지만, 베트남의 참과 정벌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역시 어떤 민족을 파괴한 후에 그들에게 보호령을 받아들여 그 인종을 없애버릴 수 있었고, 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 수 있었다”라고 덧붙이고 있다(Phan Bội Châu 1990g, 387, 449).

팽창적인 민족주의에 기반한 자국사 인식은 베트남 지식인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식민 정책에 대한 전망으로 나타났다. 東京義塾에서는 동포들에게 모험심이 있는 유럽인들의 ‘植民學’을 연구하도록 장려했다(Đông Kinh Nghĩa Thục 1907b, 5a). 새로운 베트남을 꿈꾸었던 판 보이 쩌우는 *Tân Việt Nam*(新越南)에서 이민을 장려하고 國權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의 군인들이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의무로 삼아야 한다고 환기시켰다(Phan Bội Châu 2000a, 114). 그러면, 과연 영토 획득의 대상이 되었던 지역들은 어떤 나라들이었을까? 자국사 서술에서 소위 베트남의 ‘옛 영토’라고 지적되었던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여전히 베트남 지식인들의 관념 속에 남아 失地 회복의 대상이지는 않았을까? 이와 관련하여, 판 보이 쩌우의 베트남 영토관도 흥미로운 분석 대상이다.

1905년과 1906년 사이에 작성된 판 보이 쩌우의 글에는 당시 베트남의 국토 면적을 소개한 부분이 군데군데 등장하는데, 26,3000 英方里라고 언급한 경우가 제일 많다(Youn 2007, 583-584). 베트남 역사 연구자 쩌응 브우 림(Trương Bửu Lâm)에 의하면, 실제 127,243 英方里에 해당하는 베트남의 면적을 판 보이 쩌우가 지나치게 과장했다고 설명하고 있다(Truong Buu Lam 2000, 124). 그러나, 판 보이 쩌우의 이러한 과장이 단순히 베트남의 영토가 타국의 것보다 크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판 보이 쩌우의 영토 계산에는 다른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

던 것일까?

라오스의 영토가 89,460 英方里, 캄보디아의 영토가 69,628 英方里임을 고려한다면(Centre d'histoire et civilisations de la péninsule indochinoise 1983, 41, 65), 판 보이 쩌우가 베트남의 영토를 측정할 때 이 두 나라의 영토를 합산해서 포함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Việt Nam Quốc Sử Khảo*에서도 외국에 빼앗긴 영토를 말할 때, 雲南 지역과 廣東 지역을 사례로 들고 있기는 하지만, 라오스나 캄보디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오히려, 프랑스에 의한 국토 분할을 설명할 때, 안남(중부), 통킹(북부), 코친차이나(남부)와 함께 라오스와 캄보디아도 그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Boudarel 1968, 133; Phan Bội Châu 1990g, 324-485). 雲南과 廣東은 이미 오래 전에 상실한 현재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지만, 라오스나 캄보디아는 안남, 통킹, 코친차이나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베트남의 영토라고 판 보이 쩌우가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越南光復會가 1912년 여름이나 가을에 만든 베트남 국기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 국기에는 금색의 바탕에 다섯 개의 붉은 별이 그려져 있었는데, 금색은 베트남 인종을, 붉은 색은 식민지 베트남의 상황을 상징하고 있었다. 越南光復會 군기에도 붉은 바탕에 다섯 개의 하얀 별이 그려져 있었다. 판 보이 쩌우에 따르면, 다섯 개의 별은 조국의 다섯 지역의 통합을 나타내고 있었다(Phan Bội Châu 1957, 146-147). 이 점에 대해서 부다렐(Georges Boudarel)은 통킹, 안남, 코친차이나로 구성된 베트남이 다섯 개의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Boudarel 1968, 140).

그런데, 辛亥革命 이후 성립된 중국의 共和國이 五族 연합에 의한 大中華民國을 표방하고 있었던 사실은(AMAE, NSCH, v.

37, 43) 越南光復會의 五星旗를 이해하는데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辛亥革命의 성공으로 성립된 中華民國의 正式 國旗로 채택된 五色旗가 상징하는 漢·滿·蒙·回·藏의 五族 聯合에 의한 ‘五族共和’의 문제는 清朝支配體制가 확보해 놓은 영역 전체는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민족주의적(또는 大漢族主義的)’ 발상 이상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었다(金衡鍾 2001, 10-19). 아울러, 1912-1913년 廣東, 廣西, 雲南의 共和 革命家들과 인도차이나의 華僑들은 프랑스 제국주의 세력에게 빼앗긴 屬國 安南을 다시 중국의 영토로 회복하여 中華의 위상을 드높일 것을 일제히 제창하고 있었다(AMAE, NSI, v. 18, 143, 145, v. 22, 96-97, NSCH, v. 42, 187-190, v. 43, 115-116, v. 91, 52-53, 56, v. 612, 40-42).

中華民國의 이러한 ‘민족주의적’ 발상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영토의 다섯 부분이라고 설명되는 五星이 톤킨, 안남, 코친차이나 뿐만 아니라, 라오스와 캄보디아도까지도 포함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판 보이 쩌우와 越南光復會의 회원들은 ‘小中華’를 자처했던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베트남 원래의 영토를 회복한 이후 주변의 두 나라에 대한 식민지 팽창도 구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IV. 맺음말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新書’를 통해 새로운 학문을 수용한 전환기 베트남 지식인들은 東遊運動과 辛亥革命 이후 중국에서의 망명 생활을 거치면서 동아시아 세계를 몸소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자국의 독립을 위한 주변국 지식인

들과의 연대는 一國 독립운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주변국의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지식인들도 아시아 연대를 기반으로 국익을 확보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 이러한 手段으로서의 連帶는 目的으로서의 利己의 民族主義를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利己의 民族主義는 언제든지 他國에 대한 팽창적 民族主義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성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20세기 초의 베트남 지식인들에게서만 나타났던 현상이 아니라, 1920-40년대의 저명한 지식인이었던 팜 켄(Phạm Quỳnh, 1892-1945)의 경우까지 지속적으로 계승되었다(Phạm Quỳnh 1938, 16, 449, 451, 453-454). 어쩌면, 현재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의 지도가 베트남의 영역 이외에도 라오스와 캄보디아까지 포괄하고 있는 모습도 비슷한 발상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

중부 출신의 판 쩐과 프랑스 식민학교 출신의 응우옌 반 빈과 같은 당시의 선구적인 지식인들은 서구와 일본 제국주의의 위험성과 팽창적 민족주의의 발흥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대다수의 베트남 민족주의자들은 그들을 소외시키면서 독립운동 조류에서 배제시켜 버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20세기 초 베트남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동아시아는 민족 생존을 위한 연대의 공간으로 크게 확장되었지만, 자민족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타민족의 이해관계를 도외시킬 수 있다는 관념을 ‘근대적’으로 재생산해 낸 냉엄한 ‘優勝劣敗’의 場이기도 했던 것이다.

21세기 초반을 살아가며 동아시아 담론을 이따금씩 접하는 현재의 우리들도 20세기 초반에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보였던 태도와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다.

참고문헌

『독립신문』.

『皇城新聞』.

金衡鍾 2001. “清末 革命派의 ‘反滿’革命論과 ‘五族共和’論.” 『중국근현대사연구』, 12집.

서재필. 1947. “回顧甲申政變.” 민태원, 『甲申政變과金玉均』, 서울: 국재문화협회.

盱衡生 1909(9.9-11). “讀越南史有感.” 『大韓每日申報』.

유인선,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서울: 이산, 2002.

윤치호. 1971-1975. 『윤치호일기』, 국사편찬위원회, v. 4.

이진명. 2004. “쿠랑-유럽 한국학의 선구자-.” 『한국사 시민강좌』 34.

정문상. “19세기말~20세기초 '개화지식인'의 동아시아 지역 연대론.” 『아세아문화연구』(暎園大學校아시아文化研究所·중앙민족대학한국문화연구소), 8.

趙素昂. 1992. 『遺芳集』(1933), 서울: 아세아문화사.

쯔엥 터우(Chuong Thau). 2007. “동남아 근대화 전환기에서의 베트남-한국 관계.” 『제3차 국제학술대회 근대 전환기의 동아시아와 한국 자료집』, 인하대학교 대학원 한국학과 BK21동아시아한국학 교육·연구 및 네트워크 사업단.

洪淳鎬. 1986, “韓·佛人士交流와 프랑스顧問官의 來韓(1886-1910).” 『韓佛修交100年史』, 韓國史研究協議會.

AMAE(Archives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프랑스 외무성 문서)

CCCS(Correspondance consulaire et commerciale, Séoul): v. 2.

NSA(Nouvelle Série, Asie): v. 2, dossier Immeubles, I. Japon et Corée 1907-1917, Sous-dossier Séoul.

NSC(Nouvelle Série, Corée): v. 3, v. 8, v. 13, v. 25, tome 1, v. 27, v. 29

NSCH(Nouvelle Série, Chine): v. 8, v. 28, v. 32, v. 37, v. 42, v. 43, v. 91, v. 100, v. 124, v. 200, v. 204, v. 209, v. 582, v. 612.

NSI(Nouvelle Série, Indochine): v. 2, v. 3, v. 13, v. 14, v. 17, v. 18, v. 20, v. 22, v. 23, v. 27.

PAB(Papiers d'agents, Beau): v. 6

AOM(Archives d'Outre-Mer, 프랑스 식민지성 문서)

GGI(Fonds du Gouvernement Général de l'Indochine)

AAF: Série 7F 34, Carton 65514, *Agitation anti-française dans les pays annamites*, tome I .

d.(dossier) 21518, d. 43933, "Hanoi, le 16 mai 1906. Le gouverneur général de l'Indo-Chine.", d. 26752, "Liste des périodiques chinois dont la circulation est interdite en Indochine."

AMEP(Archives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파리 외방전교회 문서)
v. 581

v. 710B

v. 711C.

『하노이第一國家文書庫資料』

RST(Fonds de la Résidence Supérieure du Tonkin, 톤킨주차관문서)

d. 36685, "Arrivée à Hanoi des jeunes chinois pour faire leurs études à l'École Pavie."

d. 38105, "Hanoi, le 17 avril 1905. Le directeur de l'École Pavie au chef du service de l'Enseignement. Objet: Liste des élèves."

ASME(*Annales de la 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n° 52 (juillet - août 1906), n° 3 (septembre - octobre 1911).

Bergère, M.-C. 1994. *Sun Yat-Sen*, Paris: Fayard, 1994.

Boudarel, Georges. 1968. *Mémoires de Phan Bôi Châu*, *Revue France-Asie*, 3^e/4^e trim., n^{os} 194-195.

Boudarel, Georges. 1981. "L'extrême-gauche asiatique et le mouvement national vietnamien (1905-1925)." Pierre Brocheux, éd., *Histoire de l'Asie du Sud-Est: révoltes, réformes, révolution*,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

Centre d'histoire et civilisations de la péninsule indochinoise. 1983. *Introduction à la connaissance de la péninsule indochinoise*, Paris: Imprimerie C.I.E.

Davis. Horace B. 1967. *Nationalism & Soci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Frédéric, Louis. 1996. *Le Japon, dictionnaire et civilisation*, Paris: Édition Robert Laffont S. A.

- Jansen, M. B. 1954. *The Japanese and Sun Yat-sen*, Harvard Univ. Press.
- Nguyễn Thế Anh. 1992. *Monarchie et fait colonial au Việt-Nam (1875-1923)*, Paris: L'Harmattan.
- Phạm Quỳnh 1938. *Nouveaux essais franco-annamites*, Huế: Éditions Buy-Huy-Tin.
- Phan Huy Le. 2006. "Dong Du Movement in Vietnamese and Japanese Cultural Exchanges." *Nghien Cuu Lich Su*(Journal of Historical Studies) 1(1).
- Snyder, L. L. 1968. *The New Nationalism*, Ithaca·New York: Cornell University.
- Tran My-Van. 1999. "Japan through Vietnamese Eyes (1905-1945)."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vol. 30-1.
- Tirard, Henri. 1914. "Le Réveil de l'Asie." *Courrier d'Haiphong* (17 janvier 1914)
- Truong Buu Lam 2000, *Colonialism Experienced, Vietnamese Writings on Colonialism, 1900-1931*,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Youn, Dae-Yeong. 2007. "Les idées et les mouvements réformistes en Corée et au Việt Nam, 1897-1911: la tradition, le 'nouveau savoir' (新學, sinhak ou tân học) à travers les 'nouveaux écrits' (新書, sinseo ou tân thư), et leurs interactions," Thèse de l'Université Paris VII.

『日本外務省文書』(한국 국회도서관 소재, 마이크로필름)

MT 1.3.1.4(Reel 577)

MT 3.10.2.13(Reel 773)

『アジア歴史事典』, 1959-1962. 東京: 平凡社, 10 vs.

白石昌也. 1981. "東遊運動期のファン・ボーイ・チャウ." 永積昭 編, 『東南アジアの留學生と民族主義運動』, 東京: 巖南堂書店.

白石昌也. 1993. 『ベトナム民族運動と日本・アジア』, 東京: 巖南堂書店.

東亞同文會. 1898. "東亞同文會主意書發會決議." 『清議報』, n° 1.

- 徐繼畬. 1866. 『瀛環志略』(1848), 北京: 總理衙門, 第二版.
- 徐友春 編. 1991. 『民國人物大辭典』, 河北人民出版社.
- 梁啟超. 1916. “論私德.” 『飲冰室全集』, 北京: 中華書局, 1916, v. 3.
- 雲南省歷史學會·雲南省中國近代史研究會 編. 1991. 『雲南辛亥革命史』, 雲南大學出版社.
- 中國國民黨中央黨黨史史料編纂委員會 編. 1977. 『革命文獻』, 臺北, 卷2, 「同盟會之國內外分會」, 「中國同盟會總章」, 「中國同盟會成立初期(乙巳丙午兩年)之會員名冊」.
- 中國史學會 編. 1957. 『中法戰爭』, 上海: 人民出版社, v. 7.
- 胡適. 1924. “天乎帝乎序文.” 『胡適文存』, 二集, 卷三, 上海: 亞東圖書館.
- Đào Nguyên Phổ(다오 응우옌 포). 1906 ?. “Ty Đào Nguyên Phổ Túc Bầm.” [卑陶元溥肅稟]. *Tân Văn Trích Lục*(新聞摘錄), 하노이 한눔원, Vhv. 968.
- Đông Kinh Nghĩa Thực(동 킹 응이아 특). 1907a. *Văn Minh Tân Học Sách*[文明新學冊], 하노이 한눔원, A. 566.
- Đông Kinh Nghĩa Thực. 1907b. *Văn Minh Tân Học Sách*, 하노이 한눔원, A. 567.
- Đông Kinh Nghĩa Thực[東京義塾]. 1997. “Bài hát khuyên người đi tù.” [勸僧侶歌] Vũ Văn Sạch, Vũ Thị Minh Hương, Philippe Papin, eds, *Văn Thơ Đông Kinh Nghĩa Thực*[東京義塾詩文], Hà Nội: Nxb. văn hóa.
- Nguyễn Tiến Lực(응우옌 띠엔 륵). 1995. “Phong trào lưu học của thanh niên Việt Nam ở Nhật Bản (1905-1909).” *Nghiên Cứu Lịch Sử* 278.
- Nguyễn Hiến Lê(응우옌 히엔 레). 2002. *Đông Kinh Nghĩa Thực*, Hà Nội: Nhà xuất bản văn hóa thông tin.
- Nguyễn Thuật(阮述, 응우옌 투엣). 1980. *Vãng Tân nhật kí*[往津日記], 陳荊和 編註, 香港中文大學 中國文化研究所 史料叢刊(一), 中文大學出版社.
- Nguyễn Thượng Hiền(阮尙賢, 응우옌 트엉 히엔). 1925. “Thương hải lệ đàm.” [桑海淚談] *Nam Chi Tập*(南枝集), 하노이 한눔(Hán Nôm) 원, A. 2710.

- Phan Bội Châu(판 보이 짜우). 1957. *Phan Bội Châu niên biểu*[潘佩珠年表], Hà Nội: Nhà xuất bản Văn Sử Địa.
- Phan Bội Châu(潘佩珠), 주시경 역. 1979. 『越南亡國史』. 한국학문헌연구소, 『역사전기소설』, 서울: 아세아문화사, v. 5.
- Phan Bội Châu. 1990a. *Thiên hồ ! đề ồ!*,. Chương Thâu biên tập, *Phan Bội Châu toàn tập*[판 보이 짜우 전집], Huế: Nhà xuất bản Thuận Hóa, v. 3.
- Phan Bội Châu. 1990b. *Việt Nam Vong Quốc Sử*. Chương Thâu biên tập, *Phan Bội Châu toàn tập*, v. 2.
- Phan Bội Châu. 1990c. “Khuyến quốc dân tư trợ du học văn.”[勸國民資助遊學文] Chương Thâu biên tập, *Phan Bội Châu toàn tập*, v. 2.
- Phan Bội Châu. 1990d. *Hải Ngoại Huyết Thư* [海外血書]. Chương Thâu biên tập, *Phan Bội Châu toàn tập*, v. 2.
- Phan Bội Châu. 1990e. *Tân Việt Nam*[新越南]. Chương Thâu biên tập, *Phan Bội Châu toàn tập*, v. 2.
- Phan Bội Châu. 1990f. “Chân tướng quân.”[호앙 호아 탐 전기] Chương Thâu biên tập, *Phan Bội Châu toàn tập*, v. 3.
- Phan Bội Châu 1990g. *Việt Nam Quốc Sử Khảo*[越南國史攷]. Chương Thâu biên tập, *Phan Bội Châu toàn tập*, v. 2.
- 潘佩珠[Phan Bội Châu]. 1999. “自判”. 內海三八郎, 『潘佩珠傳』, 東京: 芙蓉書房出版.
- Phan Bội Châu. 2000a. *Tân Việt Nam. Truong Buu Lam, Colonialism Experienced, Vietnamese Writings on Colonialism, 1900-1931*,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Phan Bội Châu. 2000b. *Phan Bội Châu Toàn Tập*, v. 6, Nhà xuất bản Thuận Hóa và Trung tâm Văn hóa Ngôn ngữ Đông Tây[Hà Nội].

ABSTRACT

Vietnamese intellectual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and their view of East Asia: from defensive nationalism to offensive nationalism

Youn Daeyeong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goal of my research is a detailed understanding of the ideas and actualities of the reformist movements in Vietnam from the end of the 19th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is project is concerned with determining the extent to which a Vietnamese intellectual phenomenon (the reformist movement) resembled that of other East Asian countries during the same period. Also, I examined the changes wrought by a new, emergent generation of reform-minded elites who invested themselves in 'New Learning' (*tân học*). In an attempt to clarify the reasons for the development of a view of East Asia among traditional elites, it seemed appropriate to analyse their exile in Japan and in China.

From this, Vietnamese social Darwinists had a new sense of group identity, bringing a value for innovation to their collective involvement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political discussion. The ideas and the reformist movements for the concerned period also leaned on the intellectual networks. These networks, set up from the end of the

XIXth century, entailed a progressive and growing solidarity between the reformist men of letters of Far East. To explain it, it wa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development of this factor in the point of view of the international networks, that is the formation of the united political organizations. Then, to understand best, it was necessary to ask to us what was the character of these Asian unions. From a more political point of view, we also wondered about the degree of solidarity between the diverse groups of men of letters as well as about the nature of this solidarity among the Vietnamese intellectuals fed of the social Darwinism and the "modern" nationalism.

Key Words: Vietnam, intellectuals, New Learning, New Books, East Asia, darwinism, solidarity, nationalism.